

여우별이 뜨던 날

- * 글 : 유하정
- * 그림 : 황여진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28쪽
- * 대상 : 초등학교

· 책 소개

흐린 날, ‘반짝’하고 빛나는 여우별처럼
 슬픈 날, ‘반짝’하고 힘을 주는 네 가지 이야기

여우별은 흐린 날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별이에요. 그래서 더 귀한 별이죠. 우리에게도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슬프고 속상한 날도 있죠. 그런데 날씨가 맑은 날 생각지도 못한 여우별이 ‘반짝’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흐린 날은 흐린 대로 의미가 있어요. 『여우별이 뜨던 날』에는 고민이 있는 친구 네 명이 나와요. 네 친구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해요. 고민은 점점 커지고,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것만 같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반짝’이며 무언가 찾아와요.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그 고민은 사라져 버리지요. 네 친구에게 찾아온 건 무엇이였을까요? 고민에 빠져 혼자인 것 같을 때, 책을 읽어 보세요.

· 주요 독후활동

여우별이 뜨던 날	책 속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우별이 뜨던 날 · 굴러들어 온 알 · 넌 정말 유주 · 메탈콩이 나가신다
	사고력 쑥쑥 키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공이 되어 상상하기
	창의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로 쪽지 쓰기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여우별이 뜨던 날』의 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Blank writing area for student response to question 1.

※ (2~4) 『여우별이 뜨던 날』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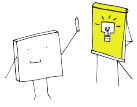
흐린 날, ‘반짝’하고 빛나는 여우별처럼
슬픈 날, ‘반짝’하고 힘을 주는 네 가지 이야기

우리에게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슬프고 속상한 날도 있죠.
그런데 흐린 날은 흐린 대로 의미가 있어요.
날씨가 궂은 날 생각지도 못한 여우별이
‘반짝’하고 나타나는 것처럼요.

2. 여우별은 언제 뜨는 별인가요?

3. 나는 최근에 어떤 슬픈 일이 있었나요? 왜 슬펐나요?

4. 작가는 슬픈 날에 ‘반짝’하고 힘을 주는 일이 있다고 말해요. 나에게도 슬펐던 날에 무언가 ‘반짝’하고 힘을 준 경험이 있나요?



독서 후 어휘력 쑥쑥 키우기

※ 책에 나오는 어휘를 익혀봅시다.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① 헤실대며 '엄마'라고 자연스럽게 불렀다.

• 할아버지는 ② 막무가내였다.

• 나는 입술을 ③ 양다물었다.

• ④ 대뜸 이런 말만 했다.

• 해 질 녘 ⑤ 어스름한 기운 때문에 잘못 본 건가.

(나)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 바람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은 어떤 뜻으로 쓰였을지 알맞은 뜻과 연결해 보세요.

① 헤실대다 • • ㉠ 빛이 조금 어둡하다.

② 막무가내 • • ㉡ 싱겁고 어설피게 자꾸 웃다.

③ 양다물다 • • ㉢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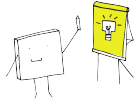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④ 대뜸 • • ㉣ 힘을 주어 짝 다물다.

⑤ 어스름하다 • • ㉤ 달리 어찌할 수 없다.

2. (나)의 밑줄 친 낱말 '바람'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는 바람에’ 구성으로 쓰여)) 뒷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

이를 참고로, '바람'을 넣어 문장을 지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여우별이 뜨던 날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내 고양이 초코는 저 녀석이 들어오던 날 집을 나갔다. 엄마는 고장 난 엘리베이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확신했다. 분명 저 녀석 때문일 거라고. 초코도 갑자기 우리 집으로 들어온 일곱 살짜리 녀석과 저 녀석 아빠가 보기 싫었을 거다.

(나) “거기 놀이터 옆에 살구나무 아래 말여.”

어? 살구나무는 내가 초코랑 자주 놀던 곳이다. 다른 곳은 가기 싫어하던 초코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곳이었다. 내가 초코를 만났던 곳도 바로 그곳이었다. 가족을 잃은 듯 혼자 울던 초코를 내가 집으로 데리고 왔으니까. 할아버지는 그곳에 중요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아무도 내 맘을 몰라 준다고 느낄 때 꺼내 보라고도 했다. 하룻밤 신세 진 값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 “찬유야, 괜찮아?”

“형, 미안해. 내가 할아버지를 잘 못 봐서……. 엄마한테 혼나면 나 때문이라고 해. 영?” 이 자식은 팔이 부러졌는지 꼼짝하지도 못하면서 별걱정을 다 하는 중이었다.

(중략)

찬유는 팔에 깁스를 두 달이나 하고 있어야 했다. 내가 세수도 시켜 주고 밥도 먹여 줬다. 어디까지나 찬유가 원해서 해 준 거였다. 가까이서 보니까 제법 귀여운 구석이 보이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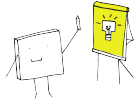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라) 흐린 날이어서 더욱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별빛이었다.

1. (가)와 (다)에서 주인공 ‘나(도준)’는 찬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정리해서 적어 보세요.

(가)	(다)

2. (나)에서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3. (라)에서 주인공 ‘나(도준)’에게 ‘흐린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또 ‘반짝’하며 힘을 주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굴러들어 온 알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엄마가 동생만 챙겨도 촛불이랑 촛대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새아빠하고만 얘기 할 때도 그랬고, 동생하고 한 시간이 넘도록 욕실에서 안 나올 때도 그랬고, 셋이서만 웃을 때도 촛불이와 촛대가 있어 괜찮았다. 촛불이는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촛불이를 보고 있으면 진짜 초를 켜 것처럼 내 맘이 환해졌다.

(나) 자기 알이 아닌 걸 알아챈 어미 새는 세 개의 알을 하나도 남김없이 쪼아 버렸다. 두 개는 노른자까지 보였다. 나머지 한 개는 금이 가 있었다. 깨지려고 했다. 그 알을 보는데 순간 상처투성이 동생 피부가 떠올랐다. 어미 새도 굴러들어 온 알이 미웠을까.

(다) 동생이 나를 불러 세웠다.

“형, 내가 촛불이네 집에 두 번이나 이불 덮어 줬는데…… 그땐 괜찮았던 말이야.”

내가 푹 자고 있을 때, 저 녀석은 촛불이네가 걱정되어 잠도 못 잤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동생이 꽤 괜찮아 보였다. 놀랍고 고마웠다. 맘 한 칸이 약간 폭신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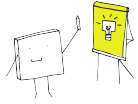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1. (가)에서 ‘나’는 어떤 속상한 일이 있나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2. 나도 슬프거나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존재가 있나요? 사람이나 동물, 사물 등 나를 위로해 주는 존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해 보세요.

3. (나)에서 어미 새와 굴러들어 온 알은 각각 누구를 뜻할까요?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어미 새	·	동생
굴러들어 온 알	·	나

4. (다)에서 주인공이 새롭게 안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년 정말 유주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내 엄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 바람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지만 외로웠던 나는 누군가 함께 있는 기분을 느껴 보고 싶었다.

(나)“유주야!”

유주를 부르며 들어오는 사람은 유주 엄마인 것 같았다.

유주의 엄마는 유주의 가방만 보고도 기분 나쁜 말을 쏟아냈다. 공부는 안 하고 요리만 한다는 등, 다치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등등의 말이었다. 결론은 요리를 배우는 것보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였다.

(다) 까만 연기가 거실을 둘러싸고 유주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나는 유주를 안고 큰 소리로 울었다. 우렁차게 울었다.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몸에서 끌어내 울었다.

“유주야, 일어나. 내가 진작에 갔어야 했어. 어제 갈 걸 그랬어. 유주야, 유주야.”

“평평, 평!”

뭐가 터진 건지 소리가 꽤 크게 났다. 나도 그 뒤로 정신을 잃었다. 어렴풋하게나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얼마 후 유주의 집은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불길은 초기에 잡아서 다행이라는 사람들 소리가 들렸다.

“근데 왜 집 안에 닭이 있어? 초록색 벼슬을 가진 닭은 처음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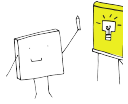
1. 사람 유주와 공룡 유주는 이름뿐 아니라 닮은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닮았나요?

2. 공룡 유주와 사람 유주는 각각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공룡 유주	사람 유주

3. 공룡 유주와 사람 유주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각각의 입장이 되어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세요.

공룡 유주가 사람 유주에게	사람 유주가 공룡 유주에게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메탈콩이 나가신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다음 날, 아파트 뒷문으로 들어가려는데 ‘강아지를 찾습니다.’란 글과 함께 말티즈 사진이 붙어 있었다. 현수네 말티즈 야코가 앞을 뺨히 바라보며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부드러워 보이는 털, 가지런히 포개어 앉은 다리, 동그랗고 커다란 눈망울, 양 갈래로 묶어 놓은 머리, 파란 리본. 파란 리본? 콩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머리에 묶여 있던 그 파란 리본이었다.

설마 아니겠지. 분명 내가 콩이라고 불렀을 때 “왈왈왈.” 짓었잖아. 날 알아보고 메탈콩이 나에게 온 거였잖아. 야코가 아닐 거야.

(나) 어? 미끄럼틀 뒤에서 까만 강아지 한 마리가 나를 보고 있었다. 툭망한 눈, 윤기 나는 곱슬한 털, 뭉툭한 꼬리는 나를 반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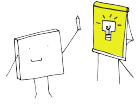
나는 까만 강아지 앞에 우뚝 섰다.

“너 누구니?”

“멍멍멍머멍 멍멍멍.”

아, 나를 보고 짓는 저 녀석, 사랑스럽다. 어떡하지?

1. 내가 메탈콩이라고 생각했던 강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나요?
2. 승호는 강아지를 현수에게 데려다줍니다. 만약 내가 승호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요?
3. <메탈콩이 나가신다>에서 승호가 새 강아지를 만나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해서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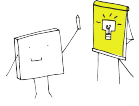


독서 후 사고력 쑥쑥 키우기

1. <여우별이 뜨던 날>의 ‘도준이’와 <굴러들어 온 알>의 ‘정우’가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도준	
정우	
도준	
정우	
도준	
정우	

2. 네 가지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한 가지를 골라 나만의 표지를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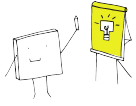
독서 후 창의융합_ 위로 쪽지 쓰기

※ 내 주변에도 혹시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위로 쪽지를 만들어 전달해 보세요. (위로 쪽지를 자르고, 뒷면에 위로 쪽지라고 써서 전달하면 됩니다.)

예시 답안)

진호야,

오늘 아침에 엄마랑 싸워서 속상하다고 했지? 내 쪽지가 네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1. 예) 표지에 그려진 두 아이는 어떤 사이일까? 예) 제목 위에 그려진 건 공룡일까? 예) 제목을 보니까 여우별이 뜨던 날 일어난 일을 쓴 책인 거 같다. 2. 흐린 날 갑자기 '반짝'하고 뜨는 별. 3. (예시 답안) 시험을 잘 못 봐서 슬펐다. 4. (예시 답안) 시험을 못 봐서 속상했는데, 친구들이 위로해 준 덕분에 기분이 나아졌다.								
3쪽	1. ①-㉠ / ②-㉡ / ③-㉢ / ④-㉣ / ⑤-㉤ 2. (예시 답안) 급히 먹는 바람에 체했다.								
4쪽	1. <table border="1" data-bbox="268 763 1361 860"> <thead> <tr> <th data-bbox="268 763 836 792">(가)</th> <th data-bbox="836 763 1361 792">(다)</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8 792 836 860">⇒ (예시 답안) 찬유 때문에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찬유가 새 식구가 된 걸 싫어하고 미워한다.</td> <td data-bbox="836 792 1361 860">⇒ (예시 답안) 찬유가 제법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들기 시작한다.</td> </tr> </tbody> </table> 2. (예시 답안) 할아버지의 정체는 초코일 것 같다. 초코가 아는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 그냥 할아버지일 것 같다. 초코와 비슷했던 건 우연인 것 같다. 등 3. 예시 답안) 흐린 날은 초코를 잃어버린 날, 새 아빠와 동생이 생긴 날, 엄마가 동생만 예뻐한 날 등 / 힘을 주는 일은 동생과 마음이 통한 일, 초코를 닮은 할아버지를 만난 일 등	(가)	(다)	⇒ (예시 답안) 찬유 때문에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찬유가 새 식구가 된 걸 싫어하고 미워한다.	⇒ (예시 답안) 찬유가 제법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들기 시작한다.				
(가)	(다)								
⇒ (예시 답안) 찬유 때문에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찬유가 새 식구가 된 걸 싫어하고 미워한다.	⇒ (예시 답안) 찬유가 제법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들기 시작한다.								
5쪽	1. 예시 답안) 새아빠와 새 동생이 생긴 뒤로 자기만 외톨이가 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촛불이와 촛대가 위로해 주었다. 2. 예시 답안) 콩아, 내가 슬플 때마다 내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 줘서 고마워. 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고양이야. 3. 어미 새-나 / 굴러들어 온 알-동생 4. 예시 답안) 동생이 촛불이네 집에 이불을 덮어 줬다는 걸 알게 되었다. 동생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 지금까지 미워했던 게 미안해지기도 했다.								
6쪽	1. (예시 답안) 외로워 한다는 점이 닮았다. / 자기 편이 없다는 점이 닮았다. 등 2. <table border="1" data-bbox="268 1357 1337 1456"> <thead> <tr> <th data-bbox="268 1357 804 1386">공룡 유주</th> <th data-bbox="804 1357 1337 1386">사람 유주</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8 1386 804 1456">⇒ (예시 답안) 혼자 남아서 외로웠다.</td> <td data-bbox="804 1386 1337 1456">⇒ (예시 답안) 엄마가 요리하는 걸 허락해 주지 않아서 힘들다. 자기 편은 없는 것만 같았다.</td> </tr> </tbody> </table> 3. <table border="1" data-bbox="268 1507 1366 1606"> <thead> <tr> <th data-bbox="268 1507 817 1536">공룡 유주가 사람 유주에게</th> <th data-bbox="817 1507 1366 1536">사람 유주가 공룡 유주에게</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8 1536 817 1606">⇒ (예시 답안) 가족 없이 홀로 남은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td> <td data-bbox="817 1536 1366 1606">⇒ (예시 답안)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 또 늘 내 편이 되어 줘서 고마워.</td> </tr> </tbody> </table>	공룡 유주	사람 유주	⇒ (예시 답안) 혼자 남아서 외로웠다.	⇒ (예시 답안) 엄마가 요리하는 걸 허락해 주지 않아서 힘들다. 자기 편은 없는 것만 같았다.	공룡 유주가 사람 유주에게	사람 유주가 공룡 유주에게	⇒ (예시 답안) 가족 없이 홀로 남은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	⇒ (예시 답안)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 또 늘 내 편이 되어 줘서 고마워.
공룡 유주	사람 유주								
⇒ (예시 답안) 혼자 남아서 외로웠다.	⇒ (예시 답안) 엄마가 요리하는 걸 허락해 주지 않아서 힘들다. 자기 편은 없는 것만 같았다.								
공룡 유주가 사람 유주에게	사람 유주가 공룡 유주에게								
⇒ (예시 답안) 가족 없이 홀로 남은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	⇒ (예시 답안)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 또 늘 내 편이 되어 줘서 고마워.								
7쪽	1. 현수네 야코였다. 2. 예시 답안) 나도 승호처럼 강아지를 돌려줬을 것 같다. 거짓말로 계속 강아지를 데리고 있으면 죄책감이 들 것 같기 때문이다. 야코도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 3. 예시 답안) 승호는 새롭게 만난 강아지의 주인을 찾아 주기로 한다. 강아지를 보호하며 SNS에 강아지 사진을 올렸고, 결국 주인을 찾아 준다. 두 번의 경험으로 뿌듯함을 느낀 승호는 강아지 임시 보호를 나서서 하게 된다.								

8쪽	1.	도준	⇒ (예시 답안) 정우야, 너도 새로 생긴 동생 때문에 힘들었다고 들었어.
		정우	맞아. 우리 가족들이 나만 빼고 서로 몽치는 거 같았거든.
		도준	나도 그랬어. 근데 초코를 닮은 할아버지가 집에 왔다 간 뒤로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
		정우	나도 소중한 여기던 촛불이와 촛대를 잃고 난 뒤에 동생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
		도준	앞으로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려고. 너도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
		정우	응. 앞으로도 동생이랑 싸울 일이 많겠지? 그래도 동생에게 좋은 형이 되어 줘 보려고 해.
	2. (답안 생략)		
	9쪽	예시 답안) 수정아, 저번에 시험을 망쳐서 우는 네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안 좋더라. 괜찮아! 다음에 또 잘 보면 되지!	